



世界最初의 3줄 지퍼

코스타商事 李 幸 勇 사장



(李 幸 勇 사장)

한번의作動으로 3줄로 된 지퍼를 동시에 열고 닫을 수 있는 3줄 지퍼를發明, 이를商品化시킨 사람이 있다. 코스타商事 李幸勇사장(43)은 이發明으로 지난 78年 第7回 제네바 國際發明展에서榮譽의金賞을受賞하기도 했다.

또 이 3줄 지퍼는 77年 12月 國內特許를 받은데 이어 지금까지 美國·英國·西獨·日本·스위스·캐나다·홍콩등 7개국의海外特許를 받아 명실공히 世界最初의發明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發明도生活周변의不便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성과 집념의 열매

지난 75년의 광복절이었다. 마침 휴일이라 李사장은 평소에 좋아하면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동전을 차장에게 내주려고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동전주머니안에 지폐가 여러겹으로 접혀있었는 속에 동전이 뒤섞여 끼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李사장은 그때 지폐와 동전을 뒤섞이지 않도록 칸을 나누고 동시에 여닫을 수 있는 지퍼를 개발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H社特許課長이던 李사장에게 3줄 지퍼의發明은 생각처럼 큰 고난은 뒤따르지 않았다.

문제는製品生產이었다.

당초 기존 지퍼生産 메이커에 特許技術을 提供, 生產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지퍼生産業體의 技術水準으로 볼 때 1천분의 3mm이내의 精密度를 유지해야 하는 3줄 지퍼의 生產이 不可能하다고 판단, 직접 生產기로 했다.

會社를 나와 2名의 技術者와 함께 3줄지퍼生産機械製作에 착수했으나 1천분의 3mm이내인 精密機械製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부딪치는 온갖 고난을 오직 투철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이 3줄지퍼機械製作에 成功했다. 3년의 기간과 1억2천만원의 開發費로 이뤄진 바로 정성과 집념의 열매이다.

1日 6천개 生産

이제 1日 6천개의 지퍼生産 시설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 製品을 본격 공급할 計劃이다.

이 3줄지퍼는 '84서울國際貿易展에 出品해 美國·日本·英國·西獨·濰州·가나등 世界7개국의 주문을 받은 것을 비롯, 지금까지 31개국으로부터 見本 및 製品주문을 받았다.

그런데 오는 5月 중순이면 플라스틱 3줄 지퍼도 등장, 또 한번 世界를 놀라게 할 展望인데 요즘은 이로 인해 눈코뜰새도 없다. <86>

第26回 發明教室 盛了

4月 12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4月 12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26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코스타商事 李幸勇사장과 韓國特殊…○
- …時計開發公社 崔萬一회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
- …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的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살아 움직이는 特殊時計

韓國特殊時計開發公社 崔 萬 一 회장

평생을 時計와 더불어 살아온 時計發明王이 있다.

우리나라 近代 時計史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韓國特殊時計開發公社 崔萬一회장(57)은 民族의 悲運때문에 日本에서 태어나야 했고 철이 들기도 前에 국민학교를 다니며 時計技術을 배워야 했다.

日本에서의 어린시절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오늘의 時計發明王 崔萬一회장과 韓國特殊時計開發公社를 誕生시켰다.

國內 最初의 時計 관계 特許인 「ämpf구동장치」로 特許 第1352號를 받기도 한 崔회장의 一生은 時計, 바로 그것이 전부였다.

知德을 결비한 老신사

日本에서 時計技術을 익힌 崔회장은 8.15해방과 함께 서둘러 귀국했다. 당시 16세인 崔회장은 귀국과 함께 時計部品商를 차리고 部品을 만들었다.

또 밤에는 야간학교에 나가 못다

한 공부를 하고 틈틈히 운동도 하여 오늘의 知德을 결비한 技能人출신 經營人으로서 유도 7단의 老신사가 되었다.

뛰어난 技術로 時計部品商은 나날이 번창, 崔회장은 時計工場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6.25작후인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에서 時計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다.

崔회장의 첫 作品은 塔時計, 비록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다시 部品商으로 밀려나야 했지만 우리나라 첫 塔時計製作의 記錄을 남겼다.

사실 時計技術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당시 한 개인이 時計工場을 세운다는 것은 처음부터 不可能한 일이었다.

이때문에 崔회장은 5번이나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오뚝이를 닮은 의지

그러나 이 정도로 쓰러질 崔회장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쓸어진 줄 모른다하여 이때부터 오



(崔萬一 회장)

똑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리고 이 오뚝이를 닮은 의지는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特許 15件 · 實用新案 10件 · 意匠 7件 · 商標 6件를 소유한 崔회장이 만든 特殊時計인 눈동자가 움직이는 완구時計 · 꽃속에 나비가 나는 時計 · 塔時計 · 탈時計 · 콘트롤시계 등은 이제 國內 市場은 물론 太平洋건너 中南美 市場에 까지 팔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崔회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남은 여생도 時計와 더불어 살 計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활짝웃었다. <80>